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로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초여름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래 기도문들은 주일 예배와 모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6월의 계절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주님, 지켜 주소서.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1 - 호국보훈의 달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11)

주님, 6월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기념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감사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름 모를 희생과 눈물 위에 오늘의 일상이 세워졌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희생을 이용하거나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은혜에서 비롯됨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시간이 흘렀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상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밤을 지나 새벽을 맞게 하시고, 교회가 말보다 동행으로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언어가 우리 입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의를 외치되 사람을 정죄하는 독이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를 구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웃으로 부르는 복음의 문화를 세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개인의 위로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2 - 장마와 안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주님, 6월의 하늘이 번덕스럽고 비가 잦아지는 때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비와 바람 앞에서 연약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반지하와 옥탑, 임시 거처에서 여름을 나는 이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재난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몰리지 않게 하시고, 사회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필요를 알아차리는 눈을 열고,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일터와 학교, 도로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비 오는 길 위에서, 공사 현장에서, 배달과 운송 중에, 밤늦게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고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의 안전이 곧 공동체의 안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괜찮겠지” 하는 방심을 멀리하게 하시고, 작은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장마도 다스려 주옵소서. 반복되는 걱정과 비교의 먹구름이 드리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배수로를 열어 회개와 순종으로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재난 앞에서 무기력한 관람자가 아니라, 기도와 섬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집과 골목, 도시와 나라에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3 - 다음세대와 학기 마무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1)

주님, 6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시험과 과제, 진로의 선택 앞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적과 결과로만 자신을 판단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거짓말에서 벗어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우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가 다음세대의 숨 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의 조급함이 아이들의 어깨를 누르지 않게 하시고, 정답만 강요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예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와 리더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친구 관계와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오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소외에 깊이 다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조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 주는 말이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 없는 일이 아니라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계획이 달라져도 주님은 변함없으심을 믿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길을 여시며, 삶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함’에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4 - 여름 사역과 교회의 회복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4)

주님, 여름을 준비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와 단기선교,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며 바쁠수록,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역자와 봉사자들의 지친 손을 만져 주옵소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준비와 섬김으로 마음이 마를 때, 주님이 친히 “수고했다”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가족과 오래된 성도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익숙함이 감사의 감각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두려움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인원’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게 하시며, 예배 후의 인사와 작은 환대가 복음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관계의 오해, 섬김의 불균형, 말로 남긴 흉터가 있다면 치유해

주옵소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게 하시며, 화해가 감정의 미화가 아니라 진리 위의 새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이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여름의 모든 사역이 사람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우리도 찬송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5 - 가정과 일상

“내 집과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주님, 믿음이 가장 먼저 시험받는 자리가 일상임을 고백합니다. 6월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과 표정, 선택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부부와 가족 사이에 쌓인 피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고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겸손을 주시고, 사과가 늦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걱정이 기도보다 앞서 달려갈 때, 우리의 손에서 아이들을 빼앗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자녀가 원하는 길과 부모가 원하는 길 사이에서 갈등할 때,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좋은 성적과 스펙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의 무게로 눌린 가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물가와 고정비, 미래의 불안 앞에서 한숨 쉬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필요한 문을 열어 주시되, 우리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눔이 줄어드는 시대에, 오히려 더 지혜롭게 베푸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집과 내 집안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식탁에서, 퇴근길에서, 잠들기 전 짧은 기도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족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6 - 나라와 교회의 공적 책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1-2)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과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의 사회적 이슈와 논쟁 속에서도 교회가 분노의 화성기가 아니라, 중보의 무릎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쉬운 길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옵소서. 권력이 사람을 높이거나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과 책임이 회복되게 하시며, 법과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공공의 선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지지하기 전에 무엇을 사랑할지 먼저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갈라진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 계층과 이념의 선이 더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말이 우리의 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실을 확인하는 정직과 상대를 존중하는 절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되, 진리를 들고 사람을 찌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 학교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정과 편법을 거절하는 작은 결단, 약한 이웃을 돌보는 꾸준한 섬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함이 우리 삶의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나라에 복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으로 다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가 가장 선하심을 믿게 하시며,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예배당의 울림에 그치지 않고, 한 주의 선택과 태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6월) 7 - 선교와 열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주님,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6월을 지나 여름 사역과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때에, 우리 마음이 ‘행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사랑으로 열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위협과 오해, 외로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정의 필요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단기선교와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고백이 남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이들을 대상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배우는 자세로 존중하며 돕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멀리 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향한 친절과 정직이 복음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를 ‘특별한 사람의 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기다릴 때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